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남 지 영*

이 연구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 활동기간, 악기경험 등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존감 형성과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등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가 학생보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은 여학생의 협동심($t=-2.55$, $p<.05$)과 남학생의 근면성($t=2.23$, $p<.05$), 학년별 자존감($F=4.46$, $p<.01$)과 협동심($F=3.11$, $p<.05$) 등 성별과 학년에서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과 악기경험에 따른 인성 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주제어 : 학교 오케스트라, 인성(personality)

차 례

I. 서 론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3. 자료 처리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따른 인성 변화
2.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 차이

IV. 결 론

* 부산교육대학교 강사

I. 서론

인성(人性, personality) 교육은 어느 시대에서나 강조되어 왔으며,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가치 있고 행복한 개인의 삶과 안정적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형화 된 지식 위주의 수업’, ‘국어, 영어, 수학교과 중심으로 편성·운영된 교육과정’ 등 진학 위주의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 폭력 및 학생 왕따, 학생 자살을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교육현장에서 인성 교육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교육은 인간의 정서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며(손민호, 2004, 8), 표현과 향수에 있어 전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등(교육과학기술부, 2009, 137) 개인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의 교내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강사 지원사업¹⁾,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²⁾ 등이 그 예이다.

오케스트라 활동 역시 학생들의 창조성과 음악성을 계발하고 폭넓은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등 예술교육으로서 음악활동이 지닌 가치는 물론 정서적 안정, 단체 활동을 통한 자신감, 협동심, 책임감 등 사회성 발달, 삶의 질 향상 등(김정자, 2011, 10-13; 박영미, 2011, 6; 정수현, 2012, 4-5) 음악활동이 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인성 교육의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외 지역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 함양을 위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같은 해 5월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꿈의오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 분야별 전문인력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로 시작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12년 현재 공예, 사진, 디자인 영역이 추가되어 총 8개 분야 예술강사 4,263명이 전국 6,531개 초·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2)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 내외의 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예술적 소양을 증진시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감각적, 심미적, 그리고 정서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교과시수 확대 및 다양한 예술 수업모델 적용 등 예술교과와 일반교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현재보다 예술교육을 강화할 학교를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하며, 2012년 현재 창의경영학교 교육과정혁신형 예술교육선도학교는 전국 초·중·고 71개교(예술교육모델학교 21교, 학교폭력 대책사업 예술교육선도중학교 5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케스트라' 사업단을 출범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위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레즈(Abeles, H., 2004)는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들을 지역과 지도방법에 따라 3개의 협력(partnership)그룹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체득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에 대한 흥미가 직업 선호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 학생들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음악 관련 직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친숙하거나 더욱 자주 노출된 환경과 연관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에게 학교 음악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학생들이 일상에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한 외국 연구는 주로 가족구성, 성별, 신체조건, 친구 및 동료의 시선, 사회·경제적 수준 등 학생들이 연주활동 참여를 결정하고 악기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거나(Abeles, 2004, 250; Elpus & Abril, 2011, 129-130) 연주활동을 하는 집단 구성원의 성격(personality)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Abeles, 2004, 251; MacLellan, 2011, 86-88).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한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김나예, 2012; 김민희, 2012; 남혜선, 2009)와 만족도(김정자, 2011; 유희영, 2010; 이수정, 2009)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과 오케스트라 활동이 성적(양종모, 박진홍, 2011; 2012), 정서(김지연, 2008; 성시민, 2012), 인성(양종모, 2012), 학생생활과 인식(박영미, 2011) 등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측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 학기술부 주관의 '학생오케스트라'가 운영된 지 1년이 경과한 근래에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들도(김지선, 2012; 정수현, 2012; 최정민, 2012) 함께 시작되면서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정의적 영역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활동의 사회적, 정의적 영역 효과를 검증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중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든 발달 단계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최근 오케스트라 활동이 인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학교현장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과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 제도적인 부분과 참여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오케스트라 활동과 학생들의 인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현장에서 인성 교육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등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학년, 활동기간, 악기경험 등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인성 교육으로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가치를 공고히 하며,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교육현장에서 초등학생의 인성 증진과 관련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특성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성’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정의와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들이 다양하다(양종모, 2012, 230; 이규형, 2002, 13-14; 오상규, 2006, 5). 이 연구에서는 인성을 학교교육에서 ‘지식’과 대비되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심성(心性)’이라고 정의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초등학교와 Y초등학교 3~6학년 오케스트라 단원 94명(남자 35명, 여자 59명)과 단원의 학부모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94명의 학부모 설문지 중 불성실 및 미표기로 인한 23명의 설문지는 최종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두 단체는 국가의 별도 지원 없이 20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학교가 자체적으

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이다. 이들은 입학식과 졸업식, 학예회 등 학교 행사에서 연주하는 것은 물론 매년 2회 이상의 교내 음악제와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연주활동을 한다. Y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참여(매년 2회), 국외대만 자매결연 학교와의 합동 연주회, 학생문화축제 및 지역사회축제 공연 등 다양한 교외 연주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동아리 활동 시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매주 2시간씩 정기연습을 하며, 방학에는 3~5일 가량의 음악캠프를 통하여 집중연습 시간을 갖는다.

<표 1> 연구 대상 현황(학교별, 성별, 학년별)

	N	학교		성별		학년			
		D초등	Y초등	남자	여자	3	4	5	6
학생	94	45	49	35	59	6	21	29	38
학부모	71	38	33	22	49	4	21	17	29

2. 연구 도구

연구자는 인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체육교육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문애순(2006), 오경준(2000), 이규형(2002), 정범모(1994), 황성우(2008)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과 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인성의 하위영역을 재설정하고 영역별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과 관련한 인성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설문지는 개인적 요인 4개(자주성, 자존감, 근면성, 책임감)와 사회적 요인 3개(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총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제작한 설문지는 음악교육 관련 교수 및 전문가 4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문항별 Cronbach's Alpha 계수가 학생용 설문지는 .87-.91로 나타났고, 학부모용 설문지는 .90-.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지의 전체 신뢰도는 학생용 .92, 학부모용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지의 내용은 매우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 도구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 내용	Cronbach's Alpha(α)	
			학생	학부모
개 인	자주성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87	.90
		여가시간 활용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89	.92
	자존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7	.90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1	.92
	근면성	내가 맡은 일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88	.90
		숙제와 과제를 빠짐없이 잘한다.	.88	.90
	책임감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마치지 않고 미룬다.	.88	.90
		단체 활동에 빠지지 않는다.	.88	.90
사 회	준법성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규칙을 반드시 지킨다.	.87	.90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룬다.	.87	.90
	배려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88	.90
		복도에서 부딪혔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87	.90
	협동심	학급의 일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8	.90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한다.	.88	.90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성의 하위영역별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둘째,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배경변인별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구하고, 성별(남자, 여자)은 t-검증, 학년(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활동기간(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악기 경험(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은 F-검증(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따른 인성 변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3>~<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성의 1번 문항 ‘공부계획을 스스로 세운다.’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³⁾이 학생은 55.3%(책임감, 4번 문항)~90.4%(자존감, 2번 문항), 학부모는 67.6%(자주성, 8번 문항)~92.9%(자존감, 2번 문항)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부모의 비율은 학생의 응답 비율에 비하여 모두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최소 2.5%(자존감, 2번 문항)에서 최대 23.2%(준법성, 12번 문항)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대체로 학생보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위영역별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따른 인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주성

자주성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1번 문항은 46.8%와 40.9%, 8번 문항은 62.8%와 67.6%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자주성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공부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학생	2	2.1	7	7.4	41	43.6	24	25.5	20	21.3
		학부모	0	0	7	9.9	35	49.3	21	29.6	8	11.3
8	여가시간 활용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학생	2	2.1	1	1.1	32	34.0	29	30.9	30	31.9
		학부모	0	0	1	1.4	22	31.0	31	43.7	17	23.9

3) 문항번호 2번과 4번은 역문항이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2) 자존감

자존감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2번 문항은 2.2%와 5.6%, 9번 문항은 73.4%와 87.3%로 나타났다. 특히 2번 문항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경우에는 학생(90.4%)과 학부모(92.9%) 대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여 14개의 문항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음악 단체 활동 중 오케스트라 연주 학생의 ‘자긍심’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양종모, 2012, 244-245)⁴⁾와 일치한다. 2번과 9번 문항의 응답률은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4>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자존감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2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65	69.1	20	21.3	7	7.4	1	1.1	1	1.1
		학부모	53	74.6	13	18.3	1	1.4	3	4.2	1	1.4
9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1	1.1	3	3.2	21	22.3	30	31.9	39	41.5
		학부모	0	0	0	0	9	12.7	38	53.5	24	33.8

3) 근면성

근면성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3번 문항은 69.1%와 74.6%, 10번 문항은 62.8%와 73.2%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의 근면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연주를 위하여 규칙적인 연습 시간을 가져야 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4) 양종모는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인성의 주요인 을 성취감, 자아 존중감, 사회성 세 가지로 보았다. 그 중 자아 존중감은 자긍심, 자기인식, 계획력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자긍심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이다.

<표 5>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근면성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3	내가 맡은 일은 포기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학생	1	1.1	2	2.1	26	27.7	35	37.2	30	31.9
		학부모	1	1.4	1	1.4	16	22.5	37	52.1	16	22.5
10	숙제와 과제를 빠짐없이 잘한다.	학생	2	2.1	3	3.2	30	31.9	28	29.8	31	33.0
		학부모	0	0	1	1.4	18	25.4	29	40.8	23	32.4

4) 책임감

책임감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4번 문항은 15.9%와 7.0%, 11번 문항은 68.1%와 83.1%이다. 4번 문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마치지 않고 미룬다.’의 경우에는 학생의 55.3%, 학부모의 76.0%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책임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학부모가 그 효과에 대해 학생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단체 활동이다. 연습량 부족, 합주 시간 불참 및 지각 등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예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체 활동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과 책임감 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표 6>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책임감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4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마치지 않고 미룬다.	학생	25	26.6	27	28.7	27	28.7	8	8.5	7	7.4
		학부모	25	35.2	29	40.8	12	16.9	4	5.6	1	1.4
11	단체 활동에 빠지지 않는다.	학생	2	2.1	3	3.2	25	26.6	29	30.9	35	37.2
		학부모	0	0	1	1.4	11	15.5	34	47.9	25	35.2

5) 준법성

준법성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5번 문항은

62.8%와 80.3%, 12번 문항은 67.0%와 90.2%이다. 준법성 문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응답률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부모가 대체로 학생보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준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준법성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5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규칙은 반드시 지킨다.	학생	1	1.1	2	2.1	32	34.0	40	42.6	19	20.2
		학부모	0	0	1	1.4	13	18.3	39	54.9	18	25.4
12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룬다.	학생	1	1.1	2	2.1	28	29.8	27	28.7	36	38.3
		학부모	0	0	1	1.4	6	8.5	43	60.6	21	29.6

단체 활동에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하며, 이는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출석과 연습, 좌석배치 등 기본적인 활동 규칙 외에도 리듬과 썸머링, 호흡과 주법 등 지휘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 방법에 맞추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한 존중을 경험하게 된다.

6) 배려심

배려심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6번 문항은 58.5%와 70.5%, 13번 문항은 66.0%와 81.7%이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한 합주 연습은 다른 사람의 연주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전체의 음량과 음색, 화음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소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연주가 보나온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 옆 사람의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활이 닿지 않도록 몸을 움직여 자신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야외 연주를 할 때 보면대와 무거운 악기를 함께 이동하는 등 연주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요청되는 배려심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8>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배려심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학생	3	3.2	3	3.2	33	35.1	27	28.7	28	29.8
		학부모	0	0	0	0	21	29.6	30	42.3	20	28.2
13	복도에서 부딪혔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학생	2	2.1	4	4.3	26	27.7	28	29.8	34	36.2
		학부모	0	0	0	0	13	18.3	40	56.3	18	25.4

7) 협동심

협동심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7번 문항은 78.7%와 90.2%, 14번 문항은 62.8%와 81.6%이다. 특히 7번 문항 ‘학급의 일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2번 문항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체 활동으로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른 협동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협동심에 미친 영향

번호	문항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7	학급의 일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생	1	1.1	1	1.1	18	19.1	35	37.2	39	41.5
		학부모	0	0	0	0	7	9.9	42	59.2	22	31.0
14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	3	3.2	5	5.3	27	28.7	37	39.4	22	23.4
		학부모	0	0	1	1.4	12	16.9	41	57.7	17	23.9

2.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 차이

1) 성별

(1) 학생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여학생(M=3.96, SD=.52)의 평균값이 남학생(M=3.86, SD=.72)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 평균값은 자주성, 근면성,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평균값은 자존감과 책임감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주성, 자존감, 책임감, 준법성, 배려심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동심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성 변화 t-검증 결과

영역	성별	N	M	SD	df	t	p
자주성	남자	35	3.67	1.00	92	-.50	.615
	여자	59	3.76	.73			
자존감	남자	35	4.37	.66	92	.46	.645
	여자	59	4.30	.67			
근면성	남자	35	3.87	.98	92	-.48	.630
	여자	59	3.95	.73			
책임감	남자	35	3.85	.79	92	.70	.485
	여자	59	3.73	.80			
준법성	남자	35	3.87	.94	92	-.26	.793
	여자	59	3.91	.66			
배려심	남자	35	3.70	.90	92	-1.46	.147
	여자	59	3.95	.77			
협동심	남자	35	3.70	.87	92	-2.55*	.012
	여자	59	4.11	.67			
전체	남자	35	3.86	.72	92	-.77	.440
	여자	59	3.96	.52			

*p<.05

따라서 학생의 경우 성별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협동심 영역에서는 성별이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협동심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부모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의 자녀 성별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남학생(M=4.22, SD=.43)의 평균값이 여학생(M=3.98, SD=.52)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평균값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주성, 자존감, 책임감,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면성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인성 변화 t-검증 결과

영역	성별	N	M	SD	df	t	p
자주성	남자	22	3.79	.70	69	1.07	.285
	여자	49	3.60	.69			
자존감	남자	22	4.54	.59	69	1.32	.190
	여자	49	4.34	.57			
근면성	남자	22	4.25	.48	69	2.23*	.029
	여자	49	3.86	.73			
책임감	남자	22	4.29	.66	69	1.63	.108
	여자	49	4.01	.68			
준법성	남자	22	4.27	.50	69	1.53	.128
	여자	49	4.04	.61			
배려심	남자	22	4.09	.68	69	.53	.598
	여자	49	4.00	.66			
협동심	남자	22	4.31	.47	69	1.97	.052
	여자	49	4.04	.57			
전체	남자	22	4.22	.43	69	1.85	.069
	여자	49	3.98	.52			

*p<.05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별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면성 영역에서는 성별이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근면성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년

(1) 학생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학년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평균값이 3학년(M=4.47, SD=.43), 4학년(M=4.00, SD=.42), 5학년(M=3.92, SD=.55), 6학년(M=3.79, SD=.7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생의 학년에 따른 인성 변화 F-검증 결과

영역	학년	N	M	SD	df	F	p
자주성	3학년	6	4.50	.77	3	2.34	.079
	4학년	21	3.69	.87			
	5학년	29	3.81	.79			
	6학년	38	3.56	.83			
	전체	94	3.72	.84			
자존감	3학년	6	5.00	.00	3	4.46**	.006
	4학년	21	4.52	.58			
	5학년	29	4.34	.69			
	6학년	38	4.10	.65			
	전체	94	4.32	.67			
근면성	3학년	6	4.25	.52	3	.79	.502
	4학년	21	4.07	.71			
	5학년	29	3.91	.84			
	6학년	38	3.80	.91			
	전체	94	3.92	.83			
책임감	3학년	6	3.75	1.17	3	.68	.562
	4학년	21	4.00	.72			
	5학년	29	3.68	.84			
	6학년	38	3.73	.74			
	전체	94	3.78	.79			
준법성	3학년	6	4.66	.40	3	2.37	.076
	4학년	21	3.88	.65			
	5학년	29	3.91	.78			
	6학년	38	3.77	.83			
	전체	94	3.89	.77			
배려심	3학년	6	4.33	1.21	3	.83	.477
	4학년	21	3.90	.70			
	5학년	29	3.86	.68			
	6학년	38	3.76	.93			
	전체	94	3.86	.83			
협동심	3학년	6	4.83	.25	3	3.11*	.030
	4학년	21	3.92	.67			
	5학년	29	3.96	.65			
	6학년	38	3.82	.88			
	전체	94	3.95	.77			
전체	3학년	6	4.47	.43	3	2.43	.070
	4학년	21	4.00	.42			
	5학년	29	3.92	.55			
	6학년	38	3.79	.70			
	전체	94	3.92	.60			

*p<.05, **p<.01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학년 학생의 평균값이 모든 영역에서 4, 5, 6학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주성, 근면성, 책임감, 준법성, 배려심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존감과 협동심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학년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존감과 협동심 영역에서는 학년이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존감과 협동심 영역 중에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학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학년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인성 변화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인성 변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영역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자존감	3학년			.47	.29	.65	.28	.89*	.27
	4학년					.17	.18	.41	.17
	5학년							.23	.15
	6학년								
협동심	3학년			.90	.34	.86	.33	1.00*	.32
	4학년					-3.69E-02	.21	9.96E-02	.20
	5학년							.13	.18
	6학년								

*p<.05

(2) 학부모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의 자녀 학년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5학년(M=4.16, SD=.50), 4학년(M=4.03, SD=.48), 6학년(M=4.01, SD=.51), 3학년(M=3.94, SD=.71)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주성 영역은 3학년, 근면성 영역은 4학년, 자존감, 책임감,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영역은 5학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성의 모든 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부모의 학년에 따른 인성 변화 F-검증 결과

영역	학년	N	M	SD	df	F	p
자주성	3학년	4	3.70	.64	3	.04	.988
	4학년	17	3.61	.65			
	5학년	21	3.66	.65			
	6학년	29	3.67	.79			
	전체	71	3.66	.70			
자존감	3학년	4	4.50	.40	3	.69	.561
	4학년	17	4.29	.63			
	5학년	21	4.54	.47			
	6학년	29	4.36	.65			
	전체	71	4.40	.58			
근면성	3학년	4	3.75	.64	3	.33	.804
	4학년	17	4.05	.63			
	5학년	21	4.04	.70			
	6학년	29	3.93	.72			
	전체	71	3.98	.68			
책임감	3학년	4	4.12	.85	3	.07	.972
	4학년	17	4.11	.57			
	5학년	21	4.14	.80			
	6학년	29	4.05	.67			
	전체	71	4.09	.68			
준법성	3학년	4	3.87	.85	3	.46	.710
	4학년	17	4.11	.65			
	5학년	21	4.21	.60			
	6학년	29	4.06	.52			
	전체	71	4.11	.59			
배려심	3학년	4	3.62	.94	3	1.57	.203
	4학년	17	3.94	.60			
	5학년	21	4.26	.66			
	6학년	29	3.96	.63			
	전체	71	4.02	.66			
협동심	3학년	4	4.00	.81	3	.83	.482
	4학년	17	4.08	.40			
	5학년	21	4.28	.53			
	6학년	29	4.05	.61			
	전체	71	4.12	.55			
전체	3학년	4	3.94	.71	3	.45	.714
	4학년	17	4.03	.48			
	5학년	21	4.16	.50			
	6학년	29	4.01	.51			
	전체	71	4.06	.50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년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는 학년에 따라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활동기간

(1) 학생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기간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1년 이상-2년 미만($M=3.93$, $SD=.65$), 1년 미만($M=3.92$, $SD=.59$)과 2년 이상($M=3.92$, $SD=.57$)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주성, 자존감, 책임감 영역은 1년 미만, 근면성과 배려심 영역은 1년 이상-2년 미만, 준법성과 협동심 영역은 2년 이상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활동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학생의 활동기간에 따른 인성 변화 F-검증 결과

영역	학년	N	M	SD	df	F	p
자주성	1년 미만	41	3.73	.82	2	.00	.996
	1년 이상-2년 미만	32	3.71	.93			
	2년 이상	21	3.73	.78			
	전체	94	3.72	.84			
자존감	1년 미만	41	4.36	.66	2	.10	.900
	1년 이상-2년 미만	32	4.29	.70			
	2년 이상	21	4.30	.66			
	전체	94	4.32	.67			
근면성	1년 미만	41	3.90	.83	2	.03	.968
	1년 이상-2년 미만	32	3.95	.89			
	2년 이상	21	3.92	.76			
	전체	94	3.92	.83			
책임감	1년 미만	41	3.92	.72	2	1.81	.169
	1년 이상-2년 미만	32	3.76	.83			
	2년 이상	21	3.52	.84			
	전체	94	3.78	.79			
준법성	1년 미만	41	3.87	.76	2	.36	.698
	1년 이상-2년 미만	32	3.84	.83			
	2년 이상	21	4.02	.73			
	전체	94	3.89	.77			

영역	학년	N	M	SD	df	F	p
배려심	1년 미만	41	3.76	.90	2	.52	.593
	1년 이상-2년 미만	32	3.96	.79			
	2년 이상	21	3.88	.75			
	전체	94	3.86	.83			
협동심	1년 미만	41	3.89	.78	2	.31	.733
	1년 이상-2년 미만	32	3.98	.80			
	2년 이상	21	4.04	.72			
	전체	94	3.95	.77			
전체	1년 미만	41	3.92	.59	2	.00	.997
	1년 이상-2년 미만	32	3.93	.65			
	2년 이상	21	3.92	.57			
	전체	94	3.92	.60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기간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는 활동기간에 따라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부모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자녀의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기간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1년 이상-2년 미만(M=4.29, SD=.52), 1년 미만(M=3.98, SD=.45)과 2년 이상(M=3.98, SD=.53)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1년 이상-2년 미만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활동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학부모의 활동기간에 따른 인성 변화 F-검증 결과

영역	학년	N	M	SD	df	F	p
자주성	1년 미만	32	3.60	.61	2	1.92	.154
	1년 이상-2년 미만	17	3.94	.72			
	2년 이상	22	3.52	.76			
	전체	71	3.66	.70			
자존감	1년 미만	32	4.28	.67	2	2.65	.078
	1년 이상-2년 미만	17	4.67	.39			
	2년 이상	22	4.38	.53			
	전체	71	4.40	.58			

영역	학년	N	M	SD	df	F	p
근면성	1년 미만	32	3.89	.66	2	2.33	.104
	1년 이상-2년 미만	17	4.29	.77			
	2년 이상	22	3.88	.59			
	전체	71	3.98	.68			
책임감	1년 미만	32	4.04	.63	2	.43	.647
	1년 이상-2년 미만	17	4.23	.70			
	2년 이상	22	4.06	.76			
	전체	71	4.09	.68			
준법성	1년 미만	32	4.06	.53	2	1.05	.354
	1년 이상-2년 미만	17	4.29	.70			
	2년 이상	22	4.04	.57			
	전체	71	4.11	.59			
배려심	1년 미만	32	3.96	.62	2	2.99	.057
	1년 이상-2년 미만	17	4.35	.65			
	2년 이상	22	3.86	.67			
	전체	71	4.02	.66			
협동심	1년 미만	32	4.06	.48	2	1.02	.366
	1년 이상-2년 미만	17	4.29	.58			
	2년 이상	22	3.98	.62			
	전체	71	4.12	.55			
전체	1년 미만	32	3.98	.45	2	2.56	.084
	1년 이상-2년 미만	17	4.29	.52			
	2년 이상	22	3.98	.53			
	전체	71	4.06	.50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기간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기간 중에서 1년 이상-2년 미만이 인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악기경험

(1) 학생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악기경험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2년 이상(M=3.97, SD=.56), 1년 이상-2년 미만(M=3.82, SD=.58), 1년 미만(M=3.75, SD=.94)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주성 영역은 1년 이상-2년 미만, 책임감 영역은 1년 미만, 자존감, 근면

성,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영역은 2년 이상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악기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학생의 악기경험에 따른 인성 변화 F-검증 결과

영역	학년	N	M	SD	df	F	p
자주성	1년 미만	8	3.06	.90	2	2.89	.060
	1년 이상-2년 미만	20	3.85	.67			
	2년 이상	66	3.77	.86			
	전체	94	3.72	.84			
자존감	1년 미만	8	4.37	.69	2	2.28	.108
	1년 이상-2년 미만	20	4.05	.72			
	2년 이상	66	4.40	.63			
	전체	94	4.32	.67			
근면성	1년 미만	8	3.62	1.24	2	.87	.419
	1년 이상-2년 미만	20	3.82	.76			
	2년 이상	66	3.99	.79			
	전체	94	3.92	.83			
책임감	1년 미만	8	4.06	.62	2	.88	.415
	1년 이상-2년 미만	20	3.62	.90			
	2년 이상	66	3.79	.78			
	전체	94	3.78	.79			
준법성	1년 미만	8	3.50	1.03	2	1.15	.319
	1년 이상-2년 미만	20	3.92	.76			
	2년 이상	66	3.93	.74			
	전체	94	3.89	.77			
배려심	1년 미만	8	3.81	1.30	2	1.11	.332
	1년 이상-2년 미만	20	3.62	.94			
	2년 이상	66	3.93	.72			
	전체	94	3.86	.83			
협동심	1년 미만	8	3.87	1.32	2	.13	.870
	1년 이상-2년 미만	20	3.90	.75			
	2년 이상	66	3.98	.70			
	전체	94	3.95	.77			
전체	1년 미만	8	3.75	.94	2	.78	.459
	1년 이상-2년 미만	20	3.82	.58			
	2년 이상	66	3.97	.56			
	전체	94	3.92	.60			

따라서 학생의 경우 악기경험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는 악기경험에 따라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부모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 자녀의 악기경험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성 전체에서는 2년 이상(M=4.08, SD=.52), 1년 미만(M=4.03, SD=.55), 1년 이상-2년 미만(M=3.92, SD=.39)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주성, 책임감, 준법성 영역은 1년 미만, 자존감, 근면성, 배려심, 협동심 영역은 2년 이상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악기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8> 학부모의 악기경험에 따른 인성 변화 F-검증 결과

영역	학년	N	M	SD	df	F	p
자주성	1년 미만	6	3.75	.61	2	.33	.720
	1년 이상-2년 미만	10	3.50	.74			
	2년 이상	55	3.68	.70			
	전체	71	3.66	.70			
자존감	1년 미만	6	4.16	.93	2	.56	.571
	1년 이상-2년 미만	10	4.40	.51			
	2년 이상	55	4.43	.56			
	전체	71	4.40	.58			
근면성	1년 미만	6	4.00	.63	2	.42	.658
	1년 이상-2년 미만	10	3.80	.53			
	2년 이상	55	4.01	.71			
	전체	71	3.98	.68			
책임감	1년 미만	6	4.16	.60	2	.75	.474
	1년 이상-2년 미만	10	3.85	.62			
	2년 이상	55	4.13	.71			
	전체	71	4.09	.68			
준법성	1년 미만	6	4.16	.60	2	.02	.973
	1년 이상-2년 미만	10	4.10	.39			
	2년 이상	55	4.10	.62			
	전체	71	4.11	.59			
배려심	1년 미만	6	3.91	.91	2	.56	.574
	1년 이상-2년 미만	10	3.85	.57			
	2년 이상	55	4.07	.65			
	전체	71	4.02	.66			
협동심	1년 미만	6	4.08	.49	2	.63	.535
	1년 이상-2년 미만	10	3.95	.49			
	2년 이상	55	4.16	.57			
	전체	71	4.12	.55			
전체	1년 미만	6	4.03	.55	2	.45	.635
	1년 이상-2년 미만	10	3.92	.39			
	2년 이상	55	4.08	.52			
	전체	71	4.06	.50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악기경험은 인성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는 악기경험에 따라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인간성 회복과 정서 순화 등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 활동기간, 악기경험 등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은 초등학생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평균 8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항별 응답률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주성, 자존감, 근면성, 책임감,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등 인성의 7개 영역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최소 40.9%, 최대 92.9%가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자존감 영역의 응답률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에게 단체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시사한다.

둘째, 학부모가 학생보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준법성, 배려심, 협동심 등 인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영역은 자주성, 근면성, 책임감 등의 개인적 요인에 비해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 차이가 컸다. 이는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는 인성의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 역시 사회적 발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이 활동하는 학교 오케스트라는 정부와 기업의 특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레슨비, 악기구입비, 시설대여 및 운반비 등

연주를 위한 제반 시설과 인적 자원 확보는 학교의 예산과 학부모의 개인 경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긍정적인 평가는 인성 교육의 방안으로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 시켜준다.

셋째,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의 협동심과 남학생의 근면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인성 변화 분석 결과 여학생의 협동심($t=-2.55$, $p<.05$)과 남학생의 근면성($t=2.2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협동심과 남학생의 근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활용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생의 학년은 자존감과 협동심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인성 변화 분석 결과 자존감($F=4.46$, $p<.01$)과 협동심($F=3.1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 사후검증 결과 3학년과 6학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은 고학년보다 중·저학년의 인성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이는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조기 음악교육의 경험 제공과 그 중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다섯째,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기간과 악기경험은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성별과 학년 등 다른 배경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 결과와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오랜 기간 악기를 연주하고 활동했는지 보다는 오히려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활동 여부와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인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부산 지역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 등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주악기, 연주형태, 교육방법, 가정환경 등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에 따른 인성 변화 탐색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서울: 저자.
- 김나예 (2012). 초등학교 오케스트라활동의 실태조사: 부산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민희 (2012). 창의·인성교육적 측면에서 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운영실태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정자 (2011). 청소년오케스트라 활동의 참여동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지선 (2012). 교과부지원 학교오케스트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김지연 (2008). 관현악 합주활동과 청소년 정서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남혜선 (2009).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주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애순 (2006). 구조적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탐라대학교.
- 박영미 (2011).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성시민 (2012).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기능 및 사회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손민호 (2004).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무용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양종모 (2012).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음악교육연구**, 41(2), 227-255.
- 양종모, 박진홍 (2011).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공학**, 12, 149-159.
- 양종모, 박진홍 (2012). 중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변화 연구. **음악교육공학**, 14, 119-132.
- 오경준 (2000).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오상규 (2006).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유희영 (2010). 관현악 합주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연구: 중학교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규형 (2002). 초등학교 아동의 태권도수련과 인성발달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수정 (2009).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흥미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경기 지역의 5개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 정범모 (1994). 초등학생용 인성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정수현 (20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서울·경기지역 학생 오케스트라의 운영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정민 (2012).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황성우 (2008).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Abeles, H. (2004). The Effect of Three Orchestra/School Partnerships on Students' Interest in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3), 248-263.
- Elpus. K. & Abril, C. R. (2011). High School Music Ensembl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 Demographic Profil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9(2), 128-145.
- MacLellan, C. R. (2011). Differences in Myers-Briggs Personality Types Among High School Band, Orchestra, and Choir Member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9(1), 85-100.

ABSTRACT

The Effect of Participating in a School Orchestra on the Personal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Nam, Ji-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ticipating in a school orchestra on the personality tra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grades 3~6; N=94). Students and parents completed the survey and the variables of gender, grade, period of time as an orchestra member, and experience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parents and students recognized that participating in a school orchestra has a positive effect on personality, especially in improving self-esteem, righteous behavior, social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in teamwork activity. It was also shown that parents recognized the impact on personality more than stu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for the variables of gender and age were also found, including teamwork cooperation of female students($t=-2.55$, $p<.05$), diligence($t=2.23$, $p<.05$) and self-esteem($F=4.46$, $p<.01$) of male students, and teamwork cooperation due to grade($F=3.11$, $p<.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in personality due to period of time as an orchestra member and experience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key words: school orchestra, personality, musical experience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0월 19일(10월 29일), 게재 확정일: 11월 3일